

# 꼬리를 문 번역출판의 병폐

‘번역권’ 인정으로 새로운 기대... 공개 출판이 자리잡아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국내에서 번역된 책의 ‘번역권’도 명백하게 보호받게 된다. 유보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저작권 계약 체결 후 번역 출판되는 책에 한해 독점권이 인정된다.

‘번역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원생 정도면 아르바이트삼아 할 수 있던 ‘우리나라식 번역’에 웬 권리인가. 좀만 ‘잘나간다’ 싶으면 양심이고 도의고 무시하고 줄속으로 번역해서 시장에 내놓기 바쁜 우리 출판관행에 ‘번역권’이라는 말은 차라리 사치스럽다. ‘번역권’ 독점 인정’이 독자들에게 좋은 텍스트를 훌륭하게 번역한 책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만큼이나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는 것은 우리 번역출판의 관행들이 보여준 여러가지 병폐 때문이다.

## 우리 번역문화의 ‘총체적 위기’

우리나라 번역출판의 현주소는, 번역자들의 자질문제, 출판사의 무책임과 상업주의, 텍스트의 문제, 범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부족 등 서로 꼬리를 붙들고 맞물려 있는 문제들로 인해 ‘총체적 위기’로까지 일컬어진다.

번역가들의 자질문제는 번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와 직결된다. 번역이 단순한 언어의 옮김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회의 문화와 역사 등 총체적인 것을 옮기는 막중한 작업인데도 단순한 아르바이트감으로 여기는 역자들은 출판사들의 값싼 번역 인력 수요와 맞물리면서 세를 더해간다.

이같은 상황은 인세보다는 매절형태의 원고료 지급이 관행인 우리 번역출판 경향에도 기인한다. 책이 많이 나가지 않을 경우야 역자들에게는 목돈을 쥌 수 있는 원고료가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번역만 끝내면 내 임무는 끝” 이어도 좋다는 책임회피의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만부 이상 팔릴 경우에만 인세를 지급하고 그 이하는 안한다. 3만부도 못 팔 정도로 엉터리 번역을 한 경우라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일본 신

## 우리나라 번역출판의 현주소는

### 번역자들의 자질문제, 출판사의

### 무책임과 상업주의, 텍스트 선정의

### 문제, 범사회적이고 제도적인

### 지원의 부족 등 서로 꼬리를 물고

### 있는 문제들로 ‘총체적 위기’에

### 내몰리고 있다.

##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번역권’이

### 인정되면 번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 제시할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조사(新朝社) 간부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일본의 도서구매력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번역가의 책임감이 우리의 경우 무게를 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번역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해주지도 않는 우리 학계의 번역에 대한 인식부재와 무관심도 문제다. 실제로 학자들은 논문 한편 쓰는 것보다 번역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토로하는데, 우리 사회는 번역을 ‘죽은 노동’으로 가치절하시킨다. 번역 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자 개인의 의욕과 소명감에 기댈 뿐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명번역으로 이름난 책이 있고, 드물지만 전문 번역가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이들의 작업이 출판사에서 지급하는 원고료 외에는 아무런 보상이나 평가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편, 이미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난해 교보문고에서 조사 발표한 중복출판 실태는 우리나라 번역출판의 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방인》《갈매기의 꿈》《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우리나라 독자라면 누구나 한권쯤 가지고 있을 법한 이런 책들은 무려 30여종이 출판, 유통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 비추면 출판사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잘 드러난다. 유행에 민감하고 독

자들의 기호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텍스트 선정은 반드시 줄속 번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래 팔릴 책이 아니니 제작비를 많이 들일 수 없고 자연 싼 값에 번역을 맡길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독자들의 기호를 선도해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절실하고 의미 있는 텍스트들을 선정, 번역하는 작업이 보다 활발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출판사의 기획력 제고에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 ‘기획비밀주의’ 재고돼야

각 분야별 전문 번역가를 출판사 스스로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충분한 보수와 시간, 기획참여 보장 등 몇 가지 조건으로 역자는 심혈을 기울인 번역을 할 수 있고 잘된 번역은 독자들을 행복하게 한다.

“누구누구가 옮겼으면 믿을 만하다”는 말을 듣는 전문 번역가가 늘어날 수 있는 바탕을 출판사가 제공할 수 있다. 한길사의 정도영씨, 열린책들의 이윤기씨, 문예출판사의 차경아씨 등은 대표적인 경우다.

번역출판과 관련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우리 출판계의 지나친 기획 비밀주의다. 가령, A출판사에서 이미 번역이 완료된 원고를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 이미 B출판사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원고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거나, 다른 출판사에서 기획, 진행중인 것을 모르는 채 작업을 해 결국에는 한쪽에서 포기해야 하는 상황 등 출판사간의 과당경쟁이 낳은 기획비밀주의가 힘의 낭비를 초래한 사례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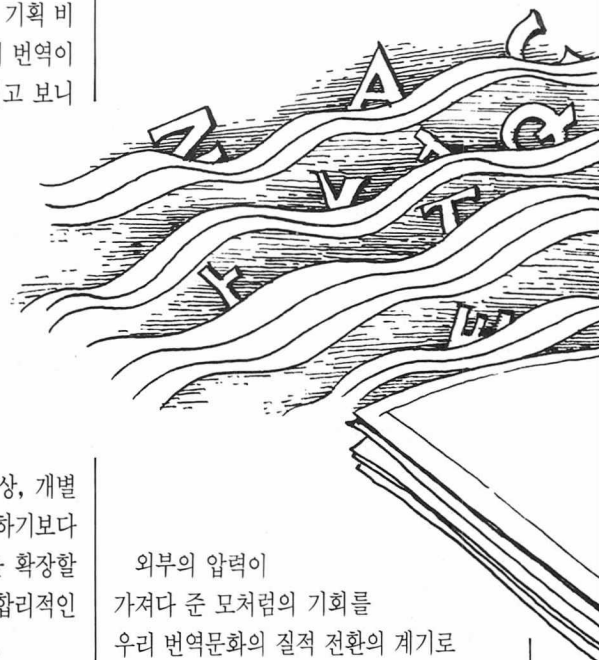
번역의 독점권이 인정받게 된 이상, 개별 출판사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급급하기보다는 출판계 전체의 이익으로 안목을 확장할 수 있는 출판인들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출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번역출판이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서강대 이정우 교수는 “번역을

하나의 창조적인 작업으로,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는 풍토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꼭 번역돼야 마땅한 고전이나 학술서 등의 시급한 번역을 위해서는 학계나 전문가들, 출판사의 관심 외에도 이들 책을 출판해 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서관 기능의 정상화나 번역지원금 확충 등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원책이다. 본질적인 수급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생산하고 소유하게 될 번역서들의 목록이나 번역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임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은 비록 외부의 힘에 떠밀린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번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좋은 기회다. 출판사들이 텍스트 선정이나 번역에 대해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우리말 능력과 외국어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인력의 수가 급증했고, 주요 텍스트들의 언어가 일어나 영어가 중심이었던 데서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꼽힌다.



외부의 압력이 가져다 준 모처럼의 기회를 우리 번역문화의 질적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한 노력은 번역에 임하는 역자와 학계, 출판계,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다.  
—박남정 기자